

강남을 중심으로 한 텐프로 업장은 여전히 한국 밤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외부에서 보면 화려하고 비밀스러워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스템은 의외로 단순하고 규칙은 분명하다. 다만 초보일수록 용어와 매너, 비용 구조를 몰라 당황하기 쉽다. 현장에서 마주한 실제 질문들을 15개로 정리했다. 강남텐프로, 강남텐카페, 그리고 텐프로 전반을 두루 다루되, 안전과 합법, 기본 예의를 중심에 둔다.

1) 텐프로와 텐카페는 뭐가 다른가요?

두 유형 모두 상향식 룸 접객을 지향한다. 텐프로는 통상 더 폐쇄적이고 초대 기반, 예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인테리어, 주류 라인업,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높고, 가격 또한 상단에 형성된다. 강남권, 특히 청담과 압구정 라인에서 많이 거론된다.

강남텐카페는 텐프로와 유사한 룸 구조를 갖추되 접근성이 조금 더 열린 편이다. 소위 비회원·초보 손님이 문의를 넣어도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고, 테이블 회전이 비교적 빠르다. 일부 매장은 젊은 층 고객 비중이 높고 음악 볼륨이나 분위기가 활기찬 편이다. 레벨 구분은 매장마다 기준이 다르며, 같은 상호라도 시기와 라인업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진다.

2) 처음 가는데, 꼭 알아야 할 기본 예절이 있나요?

룸에 들어가면 먼저 간단히 인사한다. 말투는 지나친 반말보다 편한 높임말이 안전하다. 손이 먼저 가지 않는다. 신체 접촉은 금물이고, 사진 촬영이나 녹음은 금지다. 본인 이야기만 길게 하지 말고, 질문을 짧게 던져 대화의 박자를 맞춘다. 술을 권할 때는 의사를 묻고, 거절을 존중한다. 텐프로의 공기에는 속도감이 있다. 물음과 웃음, 건배와 음악의 템포를 파악하면 분위기가 한결 편해진다.

옷차림은 과도한 명품 과시보다 깔끔한 세미 포멀에 가깝게 맞추는 편이 낫다. 셔츠는 구겨짐 없이, 신발은 닦아두는 정도의 관리. 향수는 한두 번만. 지나치게 진하면 좁은 룸에서 금세 피곤해진다.

3) 비용 구조가 궁금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면 되나요?

가장 많이 헛갈리는 대목이 비용이다. 보통은 룸비, 주류, 안주, 선택·교체 수수료, 서비스 요금, 카드 수수료, 봉사료 성격 비용, 부가세 같은 항목으로 나뉜다. 지역, 요일, 시간대, 라인업, 주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강남 기준으로 초보가 체감하는 범위를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두 명이 평일 초저녁에 들어가 위스키 12·15년 라인 한 병을 기본으로 깎다면 총액이 하단 기준 7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 심야나 상위 라인, 고연산 위스키를 선택하면 150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4인 기준으로 병이 두 병 이상 올라가면 200만 원대 중반까지도 금세 도달한다. 소주·맥주만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부 강남텐프로에서는 병급 위스키 위주로만 응대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 단위는 보통 2부제로 체감된다. 첫 세팅 90분 전후, 연장 60분 단위로 끊는 곳이 있다. 연장 시 비용 체감이 가파르니, 처음부터 목표 시간을 정해 합의하는 편이 좋다. 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붙는지, 봉사료 성격의 요금이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영수증 형태가 어떤지 입장 전에 물어 정확히 적어둔다.

4)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강남텐프로는 예약이 거의 필수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월급 직후 주간, 연말 시즌은 예약 없이 들어가기 어렵다. 지인 추천이나 기존 단골 소개 라인이 있으면 문의가 수월하다. 오픈 톡이나 포털 검색으로 번호를 찾아 예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뢰도와 안전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성함, 인원, 시간, 예산 범위, 주류 취향을 간단히 전달하면 매장도 준비가 편하다.

그냥 찾아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상층 라인이 비는 시간까지 애매하게 홀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보라면 오히려 초저녁 애매한 시간대에 짧게 경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19시 30분에서 21시 사이에 들어가면 비교적 차분한 템포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5) 몇 명이 가는 게 적당하죠? 자리는 어떻게 앉나요?

둘이서 가면 대화가 단단하게 이어지고 비용 관리도 명확하다. 셋이나 넷으로 가면 분위기를 띄우기 쉽지만, 술 페이스가 빨라지고 계산이 흐트러진다. 비즈니스 접대라면 3대 3 정도가 무난하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가면 룸 자체가 넓어져 시선과 리듬이 분산된다.

자리는 입구와 화장실 동선을 고려해 리더가 문 쪽에 앉는 편이 관리하기 좋다. 주요 주문과 계산은 한 사람이 맡아 매니저와 명확히 소통한다. 대화는 테이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듯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면 어색함이 줄어든다. 방의 볼륨, 음악 장르, 조명 밝기를 관리 요청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도 분위기 관리에 효과적이다.

6) 대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호칭과 매너 팁이 있나요?

호칭은 무리 없이 “님”으로 마무리하면 대부분 안전하다. 이름을 알려줬을 때도 과한 애칭으로 가공하지 말자. 초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은 질문 폭탄과 과한 자기 과시다. 대화는 가볍게 시작해 취향과 일상, 음악, 음식, 여행, 취미로 넓혀간다. 상대가 리액션하는 포인트를 기록하듯 기억해 [강남텐카페](#) 두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회수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웃음을 만들려고 정치·종교·성적 주제를 밀어붙이면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진다. 비즈니스 접대라면 상대 회사의 금기 주제, 최근 이슈를 사전에 체크해 두자. 텐프로는 대화의 품질이 체감 가치를 크게 좌우한다. 기분 좋은 농담 한두 개면 충분하다. 자학 개그나 누군가를 낮추는 조크는 금방 피로를 만든다.

7) 술을 잘 못 마셔도 괜찮나요? 논알코올로도 즐길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매장에 따라 논알코올 옵션과 서비스 응대가 다르다. 처음부터 “오늘은 술 약해서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밝혀라. 탄산수, 콜라, 생과일 에이드 같은 논알코올을 섞어도 리듬은 살릴 수 있다. 위스키를 시키더라도 잔을 비우는 속도를 본인이 조절하면 된다. 무리한 권주는 요즘 문화와 맞지 않는다.

개인 경험으로, 팀에 술 약한 사람이 둘 이상 있던 날에는 애초에 라이트한 위스키 한 병과 논알코올 칵테일을 섞어 세팅했다. 분위기는 충분히 살렸고, 막차 전에 깔끔하게 마감했다. 중요한 건 분위기 관리이지 주량 인증이 아니다.

8)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깔끔한가요? 현금과 카드, 영수증 문제

계산 담당을 한 명으로 정하고, 중간중간 합계를 확인하자. 병 추가, 안주 추가, 시간 연장 때마다 메모를 받아 두면 끝나고 놀랄 일이 줄어든다. 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붙는 곳이 있으니, 예약 때부터 명확히 물어 약속을 남긴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도 사전 확인이 좋다. 일부에서는 간이영수증만 주거나 상호가 다른 페이퍼로 발급하기도 한다. 회사 비용 처리라면 이 대목이 결정적이다.

현금 결제가 싸다는 말에만 기대지 말자. 투명하지 않은 결제 구조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 강남텐프로든 강남텐카페든, 계산 구조가 명료한 곳이 결국 오래 간다.

9)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헛갈립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나요?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접객을 동반한 주류 판매는 가능하지만, 신체 접촉이나 금전이 결부된 성적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된다. 룸에서의 과한 신체 접촉 요구, 방 밖으로의 부적절한 제안, 가격을 둘러싼 뒷거래 시도는 모두 리스크다. 초보라면 이 선을 분명히 알아두고, 애초에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합법의 영역 안에서 텐프로는 대화, 음악, 술, 테이블 서비스, 프라이버시, 분위기로 가치를 만든다. 그 선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선을 넘는 제안을 하거나 강요한다면, 즉시 계산 담당 매니저에게 말하고 상황을 정리하자.

10) 바가지나 분쟁이 걱정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격표가 애매하게 말로만 전달됐는데 끝나고 청구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그래서 시작 전에 항목별 구두 견적을 메모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연장 시에는 “연장 60분, 추가 병 1, 총액 대략 얼마”를 즉시 확인한다. 청구서 합계가 다르면 차분히 항목별로 재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매니저와 조용한 공간에서 단독 협의한다.

경험상, 높은 톤으로 감정을 올리면 해결이 지연된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카드 결제 전 경찰 신고 가능성을 담담히 알리고, 카드사에 할부 결제 거절권, 서명 전 취소 등 소비자 권리를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예약 문자, 가격 안내 메시지, 주문 메모 사진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성숙한 매장은 이 단계 전에 조정에 응한다.

11) 사진 촬영이나 SNS 공유는 가능한가요?

대부분 금지다. 텐프로의 핵심 가치는 프라이버시다. 룸 내부, 스태프, 동석자 얼굴이 노출되면 큰 문제가 된다.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다면 테이블만, 사람 없는 구도에서, 매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SNS 실시간 업로드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스마트폰을 테이블 모서리에 얹어두고 알림 진동을 꺼두면 모두가 편하다.

12) 귀가 안전, 대리운전, 택시 팁이 있나요?

심야 시간에는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한다. 계산을 마무리하기 15분 전쯤 대리를 부르고, 차량 위치를 미리 옮겨둔다. 강남역 인근은 새벽 1시를 넘기면 승차 경쟁이 치열하다. 늦은 시간 혼자 이동해야 한다면 변화가 쪽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 무표시 차량이나 현금만 고집하는 기사는 피하자. 차량 번호판 사진을 지인 단톡에 남겨두는 습관은 오래 가는 안전장치다.

술이 취했다 싶으면 룸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한 잔 더 마신다. 급하게 나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의외로 많다. 마감 직전의 계단, 젖은 바닥은 특히 조심하자. 매장 문 밖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예의다. 이웃 민원은 매장과 손님 모두의 리스크다.

13) 외국인도 갈 수 있나요?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갈 수 있다. 다만 모든 매장이 외국인 응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 가능 스태프가 있는지 예약 단계에서 확인하면 편하다. 메뉴판이 한국어뿐이어도 주류 사진이나 라벨을 보여주며 선택할 수 있다. 결제 구조만 명확히 합의하면 언어 장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외국인 동석 시에는 한국의 법 규정을 간단히 설명해 오해를 줄인다. 사진 금지, 과한 스킨십 금지, 계산 시점 확인 같은 부분을 미리 공유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14)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던데, 강남 안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있다. 청담·압구정 라인은 공간 밀도와 조도, 서비스 톤이 고급 라운지에 가깝다. 음악 볼륨이 비교적 낮고 대화 중심의 리듬을 선호한다. 병 라인업도 하이엔드 위스키 비중이 높다. 강남역·역삼 쪽은 회전이 빠르고 젊은 층 비율이 높다. 활기와 소음, 템포가 빠르다. 테이블이 빈틈 없이 돌고, 안주 주문도 캐주얼한 편이다. 강남텐카페라 불리는 곳들은 이쪽 분위기에 가깝다.

초보라면 본인 성향에 맞춰 선택하자. 조용히 앉아 대화하고 싶다면 청담 라인, 친구들과 가볍게 분위기를 타고 싶다면 강남역 인근이 편할 수 있다. 다만 요일과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평일 초저녁의 강남역은 의외로 차분하고, 토요일 밤의 청담은 축제 같을 때가 있다.

15)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피하나요?

첫째, 예산을 열지 않고 들어간다. 대략의 천장과 시간 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결말이 불편해진다. 둘째, 하이텐션으로 모두를 리드하려 한다. 룸은 팀플레이 공간이다. 말과 술의 속도를 테이블 전체의 호흡에 맞춘다. 셋째, 금지선에 대한 무지다. 합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한다. 넷째, 결제 구조를 확인하지 않는다. “대충”은 분쟁의 지름길이다. 다섯째, 사진과 사생활 노출을 가볍게 여긴다. 텐프로는 프라이버시가 본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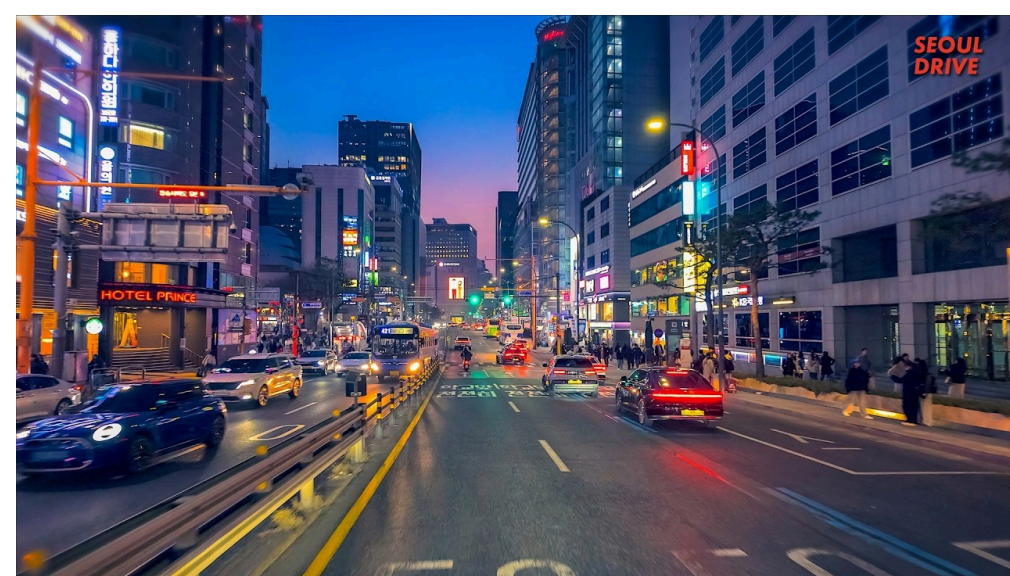
아래의 간단한 준비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된다.

- 예약 시 인원, 시간, 예산 상한, 주류 취향,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문자로 남긴다.
- 자리 도착 후 첫 주문 직전에 가격·시간·연장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 계산 담당 한 명을 정하고, 병 추가·연장 때마다 합계를 업데이트한다.
- 사진·녹음·SNS 업로드 금지 원칙을 팀에 공유한다.
- 귀가 계획을 세우고, 대리나 택시 호출을 마무리 15분 전에 진행한다.

강남텐프로 초보가 자주 묻는 추가 질문 모음

초보라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매니저 입장에서도 기대치가 명확한 손님이 편하다. 여기 몇 가지 자주 덧붙는 질문에 대한 현장 감각을 더했다.

세팅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입장, 기본 안주와 얼음·탄산수 세팅, 병 오픈, 간단 소개, 건배 후 대화. 이후 테이블 사인이 맞으면 안주 보강이나 병 추가, 연장 여부 확인이 이어진다. 테이블의 주도권은 손님에게 있지만, 텐포에서의 매너는 “원하지만 강요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안주 주문은 어떻게 고르면 좋나요? 기름진 안주 한 가지, 가벼운 과일·샐러드류 한 가지로 균형을 맞춘다. 위스키라면 짭짤한 치즈와 너츠, 따뜻한 육류 한 접시 조합이 무난하다. 술이 약하다면 초기 안주를 과하게 시키지 말자. 테이블이 복잡해지면 템포가 어수선해진다.

담배는 어디서 피우나요? 대부분 실내 금연이다. 흡연실이 따로 있거나 외부 공간을 안내해 준다. 자리를 오래 비우면 대화 흐름이 끊긴다. 한 번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빠져나가면 테이블 공기가 내려앉는다. 간단히 다녀오겠다는 한 마디면 충분하다.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체 요청이 가능한가요? 매장 규정에 따라 다르고, 예민한 사안이다.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표현은 금물이다. 분위기가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하고, 가능한 범위를 안내받는다. 추가 비용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과정에서 존중의 태도는 필수다.

주류는 어떤 라인이 무난하죠? 초보 테이블이라면 12·15년대 위스키로 시작해 반병 남을 즙음 분위기와 속도에 따라 추가를 결정한다. 처음부터 고연산으로 무리하면 속도 조절이 어렵다. 칵테일은 단맛이 강하면 페이스가 너무 빨라진다. 논알코올 칵테일을 섞어 속도를 분산시키면 훨씬 안정적이다.

초보를 위한 마지막 리마인더: 레드 플래그

몇 가지 신호는 초보라도 바로 알아채야 한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정중히 계산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 예약 때와 다른 가격표를 제시하며 “원래 그렇다”고만 하는 경우
- 카드 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상호가 다른 영수증만 고집하는 경우
- 과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거나, 금전 거래를 암시하는 경우

- 술 강요, 폭언, 조롱이 농담으로 포장되는 경우
- 계산 전 출입문을 막거나 언성을 높이며 압박하는 경우

이런 장면은 강남텐프로 전체의 표준이 아니라, 피해야 할 일부 사례다. 성숙한 매장은 투명하고 매너가 있다. 투명성과 존중의 공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반드시 있다.

현장에서 배운 디테일 몇 가지

한 시간 일찍 도착해 근처 카페에서 짧은 미팅을 하고 들어가면 팀 호흡이 정리된다. 테이블에서는 물과 얼음을 본인 속도에 맞춰 직접 챙기면 매너로 읽힌다. 건배는 지나치게 자주 하지 않는다. 술잔이 비었을 때 권하지 말고, 잔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서로의 눈을 보고 간단히 맞춘다. 이름은 처음 듣고 세 번 부르지 말자. 한두 번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호칭으로 돌아가자. 억지 친밀감은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컨디션이다. 한 명이 과음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병을 올려도 분위기는 급격히 무너진다. 첫 30분은 속도를 올리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이고, 안주를 먼저 깔아 배를 받친 뒤 리듬을 올린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후반의 만족도와 다음 날의 후회가 크게 줄어든다.

마무리 감각

강남텐프로와 강남텐카페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질서와 매너 위에 선 공간이다. 초보가 준비할 것은 과감함보다 명료함이다. 예산과 시간, 역할과 규칙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면 긴장도는 내려가고 즐거움은 올라간다. 합법의 선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팀의 호흡을 먼저 생각한다. 결국 좋은 밤은 비싼 병이 아니라 좋은 태도에서 시작된다.